



김선희 글, 그림

# 꽃을 짚어지고

도서출판 숨쉬는 행복

꽃을 짊어지고

김선희

# 꽃을 짚어지고

출간일 2018년 9월 18일

지은이 김 선 희

출판사 도서출판 숨쉬는 행복

ISBN 979-11-88233-75-5

판매가 8000원

주 소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16길 15, 902동 616호 (하계동)

[blog.naver.com/2051426](http://blog.naver.com/2051426)

© 김선희 2018

본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  
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  
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  
제어번호: CIP2018026307)

# 차례

프롤로그.....	8
달님에게 빚니다.....	10
재개발 지구 사람들.....	12
우리는 그런 사이.....	14
도세치.....	15
자연은 나에게.....	16
목단의 봄.....	17
꿈의 일생.....	18
외로워서.....	19
프리지아.....	20
공작.....	21
자유.....	22
앞새의 말.....	23
빈 마음.....	24
가난의 강.....	25
소박하게 살고 싶습니다.....	28
연약한 벚꽃.....	29
등단.....	30
바위.....	31
치과를 다니며.....	32
나는 나무를 태어나서.....	34
가난의 자유 없음.....	36
봄의 링크.....	38
봄이 온다.....	39

물보라.....	40
비누거품.....	42
나눔.....	43
빈 의자.....	44
새싹이 트일 때면.....	45
함께라면.....	46
빈 마음.....	47
나뭇잎.....	48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49
수많은 사람들.....	50
현실.....	51
오늘의 고백.....	52
교회등지.....	54
구원의 우물.....	56
교회 안에는 늘.....	57
주님을 만나 보자.....	58
마른 강.....	59
정 구르다.....	60
첫인상.....	61
하루 하루.....	62
나무.....	63
봄맞이.....	64
모름.....	66
존재.....	68
마음.....	69
존재.....	70
고독.....	71

멈춤 .....	72
마음.....	73
할아버지 신발.....	74
아버지.....	75
들.....	76
담배 연기에.....	77
대화.....	78
대화.....	79
기대.....	80
희망 촌.....	81
마음.....	82
거짓.....	83
머물 곳이 없구나.....	84
사랑.....	85
당근.....	86
담배 세대.....	87
홀로 된 배.....	88
집.....	89
새로운 눈.....	90
하루의 대화.....	91
새알 곡들.....	92
어느 식사 시간.....	93
웃음.....	94
새벽녘.....	95
동네.....	96
꽃이 피었네.....	97
할 일.....	98

양말 두 짝.....	99
저녁.....	100
불안.....	101
내 사랑 어디에 있나.....	102
들국화.....	103
비밀.....	104
나 외로운 거리를 홀로 걸어도.....	105
울보.....	106
희망.....	107
봄.....	108
내가 살아낸 삶 중에서.....	110
흑부리.....	112
그리운 겨울.....	113
포만감.....	114
행복.....	115
그리운 이.....	116
동행한 발자국.....	117
용서를 얘기 하며.....	118
꽃 짙어지고.....	119
안노.....	120
눈을 뜨며.....	121
사랑하는 사람아.....	122
그리운 주름.....	123
나의 나무.....	124
아카시아 꽃.....	125
중독된 자들.....	126
잠든 시간.....	127
소화.....	128

## 프롤로그

삶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고 싶습니다  
생명을 머금은 꽃망울들의 향기가 널리 널리 퍼져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들과 함께  
합니다

모진 마음 힘겨운 마음에 사람 냄새 나는 꽃길 심으며  
걸어가는 길 알콩달콩 인생길에 담겨진 정들을 품으며  
사르라고 삶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편 한편의  
시로 답을 씁니다



꽃을 줍어지고



# 달님에게 빙니다

달님에게 빙니다  
마음을 열어 보여도  
돌아오는 상처는  
마음을 달게 합니다  
올해에는 좋은 만남을 갖게 하소서

달님에게 빙니다  
열심을 다하여도  
돌아오는 결과는  
실망입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달님에게 빙니다  
이웃을 돌아 보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큰 마음을  
품게 하소서



달님에게 빙니다  
토끼들의 방아 찧기가  
희망의 찰떡이 되게 하소서



꽃을 짊어지고

# 재개발 지구 사람들

가난 속

재개발 지구 사람들의  
심장의 외치는 아우성

서류절차에 따라  
부서져 내리는 삶의 터전

숨조차 쉴 수 없이 흐느끼는  
가난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이 시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절망만을 선물한  
머물 수 없는 곳

꿈조차 꿀 수 없는 아파트로의 입주는  
가난한 이들에게 또 다른 가난을 불렀다

꽃을 짊어지고



쫓겨난 집터에서 찾는  
또 다른 언덕 위의 단칸방  
21세기의 한끼 식사와 물 한 모금  
입술이 타다  
태양의 불길로 들어가 버린다

우리는  
태양이 싹고 간  
재개발 지구의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디에서 찾아 줄 수 있을 것인지



# 우리는 그런 사이

한 없이 이뻐 하던  
꽃을 꺾어 버렸다

물을 주고  
마음을 주고  
눈을 맞추어  
치유할 수 없었던 줄기에서  
새잎이 돋아났다

다시 꽃이 피었다



# 도세치

물속 깊은 곳에서  
물살을 깨물 듯 헤엄치는  
빠른 도세치에서  
말없는 급한 성격이  
느린 거북이들 닮으라 한다

빨리 빨리 세태에서  
도세치의 날쌘을 보게 하지만  
물의 세계는  
느린 거북이를 닮으라 한다



# 자연은 나에게

햇살이 나에게  
말을 건넨다  
하늘 하늘 선한 바람이  
나무 그늘로 나를 인도한다

어느덧 나는  
홀로 있음을 잊은 듯  
맑은 미소로 햇살에게 다가간다



## 목단의 봄

목단 꽃 봉오리 머금은 봄  
하늘이 너무 맑아  
순수해지는 마음

겨울 내내 고독의 방을 벗어나지  
못했던 답답함이  
목단의 아름다움에 빠져  
내가 목단 나무가 되어  
목단 꽃을 피워 보려 한다  
봄처럼 화려해지는 마음

꽃을 짊어지고



## 꿈의 일생

태양의 출혈 속에  
꽃의 분노가 있어  
꿈이 꺼꾸러지는 날

발자국 하나를 남기기 위해  
표범 같은 의지가 필요함을  
마음으로 새기며

다시 꽃을 피우는 이유가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꿈이 깨닫는다



# 외로워서

둘이 있어 외로워서  
마음을 가지고 나와 버렸습니다  
겨울에도 얻지 않는 샘물이  
미소를 지으며 용기를 내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와 둘이 있을 때를  
다시 마음에 새겨  
사람으로 살기 위해  
다시 둘로 보라고 한다



# 프리지아

프리지아의 숨결이  
찬란한 햇살을 가슴에 묻게 한다  
끝없는 좌절과 피가 솟구치는  
분노와 고통 속에  
얼음이 되어버린 심장이  
깨지는 순간  
두 손으로 모아 담아낸  
프리지아의 마음이  
마음을 흠쳐가기 시작했다



# 공작

화려한 공작의 날개가  
마디마디 금이 가 버렸다  
날 수조차  
필 수조차 없다

살다 보면  
화려한 순간  
나락의 순간이 찾아온다

뼈마디를 맞추는  
날갯짓 속에서  
시간이 흐른다

정오가 찾아오면  
펼쳐지는 공작의 날개는  
화려함으로  
새 힘을 가져준다

꽃을 짊어지고



# 자유

들이 없어 외로웠습니다  
야생화를 볼 수 없고  
잡초를 밟을 수 없어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들에 내게로 왔습니다  
마음껏 볼 수 있고  
마음껏 뺨 수 있어  
낙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 앞새의 말

앞새에 맺힌 이슬은  
맑은 눈을 들어  
홀로 쪼그리고 앉아 있는 나에게  
이야기를 건네 옵니다

외로우니

눈물을 머금은 앞새는  
하늘거리다  
이슬을 흙으로 보내며  
이야기를 건네 옵니다

햇살을 바라봐



# 빈 마음

모든 것을 비워버린 나무  
가슴 속 깊이  
소박한 삶을 사르라고  
뿌리내린 빈 마음

가지마다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고  
오가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여  
빈 마음으로 함께 하자고

모든 것을 비워버린 나무  
겉은 쓸쓸하지만  
꿈을 품은 몸은  
뜨거운 심장을 지니고  
봄을 기다린다



# 가난의 강

가난은 불편할 뿐이다  
책을 읽고 위를 얻고  
그러나 그것뿐이다

온종일 발을 동동 구르며  
바쁜 일상을 살아 왔어도  
돌아오는 것은 빈곤이었다  
열심을 품지 않아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가난의 대물림  
옛 말일뿐이라고  
다짐하여 달려 보았지만  
그 끝은 처절한 가난의 숲이었다

꽃을 짊어지고



돈을 모아 작은 집을 사고  
꿈을 위해 뛰어 봐도  
맺을 수 없는  
부와의 인연은  
삶의 맥을 놓아 버리게  
만들곤 한다

가난했기에 받아야 했던  
멸시의 아픔  
가난했기에 느껴야 했던  
자격지심은  
고통의 강으로 흐르곤 했다

가난은 단지 불편함이 아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꿈조차 꿀 수 없게 된다



현대인  
물질과 마음의 가난이  
부와 빈의 산 사이를  
긴 강으로 갈라 놓아  
건널 수 없는 강으로 끝을  
맺는다



# 소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소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자연 속에 숨어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끌어 내려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사치와 허영을 알아갑니다

순간 푸른 풀잎들이 일어나  
자연으로 돌아오라고  
한들거립니다  
소박한 한들거림입니다



## 연약한 벚꽃

한없이 연약한 벚꽃이 날아와  
눈물을 흘리다가

한없이 연약한 벚꽃이 날아와  
빛이 되어 밝게 웃다가  
바람이 다하여  
길이 사라지니

검은 하늘에 하얗게 찢려  
하얀 눈물을 짜냅니다

발자국이 머무는 곳마다 따라와  
하얀 눈물은 남깁니다

꽃을 짊어지고



## 등단

돈을 주고 시를 팔았습니다  
쌀이 떨어져  
시를 팔았습니다

몇 날 몇 일을 물 한 사발로  
때우며 배고파 울면서  
한 조각 한 조각 내다 팔았습니다  
어둠이 가시기전  
새벽시장에서 콩나물을 훔쳐  
꼬여가는 배 창자를 채우며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시를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배가 고프니다



# 바위

수많은 파도가 밀려 왔다가  
나의 몸은 떠나갑니다  
좋은 친구들  
착한 이웃들  
때론 이들에게 이용당하여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올곧게 서서  
온몸으로 파도를 견디고 있습니다  
둥글 둥글해진 몸은  
상처 입은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별들이 내 곁에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꽃을 짊어지고



## 치과를 다니며

잇몸이 풍선처럼 부어올라 치과에 갔다  
입을 메기처럼 벌리고 누워  
치석제거에 들어갔다  
이빨 사이사이가 검은 구름들이 끼어  
오랜 세월 관리하지 않은 치아를  
좀먹고 있었다 한다

기계들이 들랑날랑  
벌어진 입은 살을 찢는듯하고  
쇠를 깎는 듯한 소리는  
온몸을 쪼그라들게 했다

몸살을 알았다  
살고 싶지 않아 놓고 살아온  
건강에 대한 관심이  
온몸 군데 군데 구멍을 내고 있었다

꽃을 짚어지고



구불 구불한 동굴처럼 썩어가는 치아들처럼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산다는 것은 살아야 한다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닌가  
무심했던 건강에 대한 관심  
살고자 함의 시작이었다



꽃을 짊어지고

# 나는 나무를 태어나서

나는 나무로 태어나서  
늘 한곳에서 살았다

비 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도  
뿌리는 한곳에 머물게 했다

꽃이 오는 봄이 되어도  
작은 새들이 날아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날아가 버려도  
미련하게 한곳에 서 있었다

때론 구름이 스쳐 지나가며  
나그네가 되어 보라고  
가지 끝을 흔들다 가 버려도



꽃을 짚어지고

나그네조차 될 수 없는  
제 자리에 제 자리에 하면서  
뿌리를 박았다



## 가난의 자유 없음

가난의 자유 없음 속에서  
원망과 함께 사춘기를 보냈다

그 누구에게나 젊은 날은 오듯이  
끝없는 안개 속에서  
희망 없는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꽃이 피고 지는 반복의 수레바퀴가  
한 해를 두 해를 넘기며  
자유 아닌 자유를 찾게 하였다

가난이 이길 수 없는 여유는  
어머니의 무덤을 만들고  
지친 자유는 다시 가난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가난의 자유 없음 속에서  
책들은 활자 속에서 춤을 추었고

꽃을 짚어지고



꽃술 속에서 따낸 시어는  
자유 없는 자유를 갈망하다 쓰러지고 한다



## 봄의 윈크

어리디 어린 가지에  
연한 새싹이  
눈을 들어 나를 본다

부서져 내리는  
암흑의 마음이 사라지고  
행복이 웃었다

어린 가지들 얼굴을 마주하고  
두 입술을 모아 얘기하며  
같은 길을 걷는 새싹을 향하여  
봄이 살짝 윈크를 한다



봄이 운다

마음이 쓰다

달콤한 유채꽃밭에  
눈보라 날리듯  
안개 속에 내가 있고

어두운 봄에  
내려온 별은  
바다가 되었다

파도가 운다  
봄이 운다



# 물보라

호흡조차 모르던 나에게  
숨이 골아지고  
팔이 휘저어지며  
물이 무섭지 않게 되던 날

한 사람이 낮설어  
눈을 피하고  
물 속으로 파고드는 마음을  
물방울들이 모아  
큐피트의 화살을 쏘았다

쑥스러운 말들이  
눈부시게 빛나는 눈 속에서  
녹아나고  
물속으로 비수하는 마음의 뿌리를  
힘차게 치며



꽃을 짊어지고

말없는 물고기 한 마리  
잡아 올렸다

꿈인 듯 설레는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팔 저으며  
간 거리는 마음의 거리  
물속 깊은 곳의 세상을  
둘을 하나로 몰아주었다  
물보라 물기등처럼



# 비누거품

비누거품처럼 모여든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홀로 있음에 외로웠습니다

마음으로 찾아 주는 이가 없어  
늘 서글펐습니다

비누거품이 사라지고 남은 건  
고독의 병을 앓고 있는 나였습니다

비눗물에 숨어 있는 비누거품 속에서  
언제든 찾아가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아직은 남아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 나눔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쁨이다

가진 것 없이 헤매며  
배고픔에 목이 말라도  
함께 외칠 수 있는 마음은  
기쁨이다

냉 골인 겨울 방안에  
입김이 모락거리도  
혼자보다는 둘이 있어  
행복한 것은 함께 함이다

누군가와 나누며 함께 한다는 것은  
기쁨이다

꽃을 짊어지고



## 빈 의자

빈 의자에 조용히 앉아  
사랑의 무게로 가득 찬 하늘을 보며  
옛 일들을 생각해 본다

빈 가지에 묻어 있는 서늘함 속에서  
상처 입은 마음이 솟아나고

곱게 피어난 꽃들 속에서  
서로 주고 받던 아름다운 마음이  
되살아나니

자연이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젊음이었다는 것을  
빈 의자는 말을 건넨다



# 새싹이 트일 때면

빈 가지 위에  
솜털처럼 매달린  
작은 잎새에게서  
미소가 돈다

마음 깊은 속에서  
청정한 행복이  
목 줄기를 타고 올라  
미소를 머금는다

세상이 다시 열리는 봄  
고운님 오시는 길이  
미리도 행복해서  
마음의 미소가 돈다

꽃을 짊어지고



# 함께라면

한 사람의 관심이  
기쁨으로 솟을 때  
입가에 웃음꽃이 되네

한 삶의 무관심  
심장을 찌를 때  
가시 돋친 가지가 슬프다 하네

두 사람이 모여 함께 할  
풍요로운 꽃나무는  
행복이 가득 하리



# 빈 마음

모든 것을 비워버린 나무  
가슴속 깊이  
소박한 삶을 사르라고  
뿌리 내린 빈 마음

가지마다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고  
오가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며  
빈 마음으로 함께 하자고

걸을 쓸쓸하지만  
꿈을 품은 뜨거운 심장  
봄이 오면  
빈 마음이 파랗게 채워진다

꽃을 짊어지고



## 나뭇잎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소한 아픈 소리로  
상처를 준 못된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담아  
놓았다가  
용서했다가  
다시 물리는  
적은 마음을 지우려고  
풀어내어 버린  
나무의 잎  
정말 푸르리라



#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마음의 문을 열 때  
문득 생각해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외롭게 만들지 않을까

마음의 문을 열고  
아픔을 가진 이들을  
안아주고  
외로움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가슴을 열어 주고 싶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지나온 세월 속에  
숨 쉬는 여러 일들을  
이제야 마음의 소리로 듣는다

꽃을 짊어지고



# 수많은 사람들

창문 밖 바람 소리에  
눈을 뜨고  
안기고 싶은 마음  
그 품이  
누구였을지 모르겠다



# 현실

아직 낯선 과거에  
작은 일에 감사를 지우고  
더 큰 것을 바라는 욕심 속에  
나를 잃고 살아온 세월

지금은 돌아와 만난 현실에  
겸손함과 작은 자량을 전하고파  
용서를 자청하고  
이유 없는 험담을 몰아내고  
죄짓는 마음을 파도에 실어 보내며  
그냥 웃고만 있는 나에게

아직은 서투른 현실이  
감사로 다가온다



## 오늘의 고백

지나간 많은 말들로  
지나간 생의 피로로  
몇 주간을 허무 속에 묻었다

과거를 뒤돌아 보며  
집착하는 것조차도  
욕심이라고 치부하고  
달아 버린 마음 속에서

허무의 꽃이 피어났다

지금은 돌아와  
홀로 앉은 방에  
고운 말로 사랑하는  
작은 강아지 두 마리가  
조용히 잠들어 있다



꽃을 짊어지고



## 교회등지

허무하게 이어오는 나이테  
나무등지에 그래도 새들은 앉았다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먼지처럼 날아와 내 몸에 쌓인다  
그래도 아직은 꿈이 있다

추수하기엔 꽃이 떨어지고  
연한 가지가 베어져 나가도  
열매가 있기에 풍요롭다

산 사람들이기에 죽음이 있듯  
마음속엔 늘 그늘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나무등지에 새가 앉아 지저귀듯



교회등지에서 하나님을 만나  
노래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한다



## 구원의 우물

상한 감정이  
안개 그늘에서  
마음을 가리워  
감사함을 모를 때  
구원의 우물들은  
나그네에게 물이 되어 주었다

뿌리가 기근으로 죽어갈 때  
구원의 우물들은  
나무의 성장에 물이 되어 주었다



## 교회 안에는 늘

바다 파도의 뛰노는 소리  
어린 아이들의 재잘거림  
교회 안에는 늘 믿음이었다

찌는 일광  
가을 더위의 운무  
서로 아끼는 마음  
교회 안에는 늘 사랑이 있다



## 주님을 만나 보자

풀이 시들어 청청함이 다할 때  
우리는 원망과 분노로 자신을 탓 한다  
스스로의 무덤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기름진 밭을 떠나가고  
좋은 가지들을 꺾어 광야로 보내 버린다  
목이 마르고 마음이 마를수록  
찾아야 하는 주는 삶의 용기요  
지혜이다  
근심과 심한 슬픔 속에서  
아침의 씨를 발견하듯  
새싹을 탄생시키는 우리 주님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만나보자



꽃을 짊어지고

# 마른 강

강이 말라서  
냇수로 던지는 자의 슬퍼함을 볼 때  
강을 떠도는 수많은 물고기 떼들의  
방향을 압니다

주님을 모르고 헤매는  
어린양들처럼  
그들은 냇시꾼의 냇시에 걸리지도 못하고  
홀로 방황 합니다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마음이  
강물처럼 흘러  
맑은 물에서 뛰어 노는  
물고기들을 낚읍시다



꽃을 짚어지고

# 정 구르다

마음 굴리는 소리  
첫 만남  
하이얀 모래사장  
지나치는 발자국  
하나 둘  
둥그리다 멈춘  
아무 생각 없는 정들이  
구르다 만난 모양  
그대의 속 깊은 마음  
둥들 둥글 굴린다



# 첫인상

태양이 돈다  
몽글거리며  
첫 만남이 햇살을 받고  
산뜻이 웃는다  
어색함과 앓이 없는  
시간이 흘러  
익숙해져 가는 배를  
노 저어 가다 보면  
어느새 정박할 등대 빛이  
불을 밝힌다  
밤이 가는 동안  
해가 뜨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알아간다

꽃을 짊어지고



# 하루 하루

죽기 위해 태어난 갈 바위 밑  
등그린 웃음 웃고  
탄식한 사람들  
불타는 사막에 불기둥 솟듯 솟아  
머무름 없이 계속 이어가는  
말없는 삶  
긴 지평선은 이를 알고  
해 지우는 웃음을 알고 간다

하루 하루는 그렇다



# 나무

앞도 없는 가지에 꽃이 피어  
새벽부터 살구 줍는 이  
속살 씨앗이  
천지에 깔아 놓은  
튼실한 나무  
고향 나무  
어머니 나무였다

꽃을 짊어지고



# 봄맞이

제 몸 비비며 건너온 새들  
눈꽃고하 청춘의 꽃을  
황사로 넘고 달리는  
생명의 텃  
심장이 곤두서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봄 맞이



꽃을 짊어지고

꽃을 짊어지고



## 모름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 한다  
아빠로 엄마로 보여 살던 이들  
타인이 되어 나타난다  
나는 정도 함께 한 시간도  
모두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선택한다  
지워져 가는 그림자들이  
내 앞에 놓이고  
지워져 가는 그림자들이  
내 앞에 놓이고  
그들은 떠나가 버린다  
구름처럼 하늘을 닮은 마음  
жат 가지 높은 끝에 매달려  
오늘도 그러고들 있다  
나를 알던 모든 이가



나를 모른다 한다 이 여름이  
더욱 더워져 간다



## 존재

햇살 한 뼨 쥐고 있지 못할  
스러질 꽃잎들  
혈관 사이로 흐르는 사막의 먼지와  
설움 조각

존재 안으로 삶이 풍성해질 사랑에  
나무는 매미들에게 시달리며  
깊어가는 여름을 느끼고  
마음 곳곳이 빙판인 사람에게  
사랑을 곱하기로 늘릴  
이어짐을 파고

부족한 자신을 먼저 살피는 사람  
되기 위해 한 꽃잎을  
입으로 물어본다



# 마음

고마워라 고마워라  
산 삶에 선물을 준 이에게  
작은 책을 빌리고  
작은 소망을 얻고  
이제야 웃을 수 있는 기분  
그대는 아는지  
나는 이제 작은 소망을  
끌어 안으며  
쏟아나는 기쁨을 알고  
그 속에 샘물을 켜 낼 수 있었노라

꽃을 짊어지고



# 존재

살아 있어라 살아 있어라  
마음 모두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

살아 있어라 살아 있어라  
사랑의 마음이  
찾아 올 날이 있으리라

살아 있어라 살아 있어라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내 그림자를 밟는 날이 있으리라



# 고독

고독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날  
웃음 진 얼굴은 사라지고  
눈동자엔 눈물이 흐른다  
불현듯 솟아오르는 목마름으로  
낮은 붉게 물들게 하는구나  
목소리 없는 사람들이  
소리쳐도 알 수 없는 것들  
스스로 알아가며  
고독한 삶에 인사를 보낸다

꽃을 짊어지고



## 멈춤

간 사람 생각 말고  
을 사람만 반겨보세  
힘겹게 허무한 모습  
뒤돌아 나오고  
샘물 솟는 웃음만 익혀 보세나  
삶이라는 잉크에  
편지에 띄우듯  
퍼지는 호수는 잣 물결처럼  
그렇게 그려나가세  
삶이란 그런 것이라고



# 마음

마음이 열이라서  
들어올 곳이 없는 할미꽃  
언제 늙어 버렸는지  
모르는 삶의 하루  
열심으로 사르라고  
한 묘지에 선 곳고  
한 모서리에 피어난 자태  
마음 문 열기가  
하늘 아래 메인  
나무만 못하다

꽃을 짊어지고



# 할아버지 신발

신발주머니가 사라지는 날  
맨발들은 춤을 춘다  
하루 하루 힘들며  
지나간 시간은  
할아버지 수염도  
춤을 춘다  
웃을 수 있는  
취침 시간 전  
하루는 할아버지  
신발이 머물 수 없는  
시간입니다



# 아버지

하얀 강이 흐른다  
흰 머리 날리며  
평생을 살아온  
삶의 끝  
외로움과 고독으로  
홀로 누운 그 모습  
눈가에 떠문 주름  
휘어지는 힘없는 다리  
누워 있어야만  
마음이 편안한  
한 인생의 갈무리  
이젠 호반에  
흰 이슬이 늘어진다

꽃을 짊어지고



# 들

들에서 자란 모란 인생  
성장하며 보아온  
보들 벌레들  
언제나 풀잎 사이로  
걸어 다니는 인생처럼  
가도 가도 끝이 없다  
살아 보면 알겠지  
하면서 마음으로  
안아본 삶  
이젠 들에 맡겨 가야지



## 담배 연기에

잃어버린 사랑이  
담배 연기에 날리며  
아무 말이 없다  
못다 핀 꽃송이에  
날아 들 수 없는 별들만큼이나  
쓸쓸하다  
무언의 언어는  
담배 연기에 의해  
뿔어져 나오고  
사랑도 함께  
묻어 나온다

꽃을 짊어지고



# 대화

작은 열대 하나가 내게로 와  
똑 하고 떨어진다  
가질까 말까 망설이다  
집어 보았다  
알 수 없는 기분이 들어  
깨어 보니 한 믿음이 보였다  
즐거워하리라 이제는



꽃을 짚어지고

# 대화

하루의 저녁은 대화 상자  
서로 모르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며  
진실을 찾아 보고  
그 안에 숨겨진 마음을  
깨워 본다  
스스로 나눔을 갖고  
스스로 판단하며  
상대를 알아 가는 사이  
난 어른이 되어버린다  
작은 아이에서

꽃을 짊어지고



# 기대

삶을 살아가면서  
기대가 크면  
후회스럽다  
꽃이 피어 날 때  
다 피운 꽃은  
힘겹단다  
꽃의 화신이어  
삶으로 기대를  
만들어 주소서



# 희망 촌

꽃이 피고  
새들 우는  
희망 촌  
어느 방엔  
낫 지나간  
등불 하나  
조용히  
켜 있고  
사람냄새  
그리다 지친  
이브자리  
펼친 채 빈 허

꽃을 짊어지고



# 마음

꽃이 좋아 바위 뒤에 숨어 핀 마음  
등줄기에 흐르는 마음  
그대는 알 것인지 모를 것인지  
찾아도 찾아도 보이지 않는  
님의 얼굴은 어디로 갔는지  
잠들다 움짚 놀라  
가슴앓이 하는 마음  
지난 사랑의 추억도  
무심히 그리다 그림자로  
사라져 가는 밤이면  
모든 것이 헛됨을  
오늘도 아는 밤이  
뜬 눈으로 하루를 보내게 한다



# 거짓

말하고 대답하고  
거짓같이 산 인생에는  
희망이 있으나  
정직하고 속일 것 없는 이에게는  
아픔뿐이니  
삶이 고달파  
어찌 세상을 살아갈지  
어린 가지가 서글퍼  
소리 없이 우는 새 한 마리  
홀로서  
나무 등만 바라본다

꽃을 짚어지고



# 머물 곳이 없구나

훅훅 나는 새들도  
나뭇가지에 집이 있구나  
한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울 집이 있구나  
하물며 사람이랴  
머무름 없이 떠돌다  
되돌아 가는 곳조차  
없음이  
등지 잃은  
날개 짓에  
힘겨움을 토하는구나  
먼 산 빙산에서



# 사랑

사랑은 한발자국씩  
물러 나는 것  
그는 내게 마음을 주었지만  
나는 그에게 추억을 남겼네  
사랑은 뒤돌아 보아도  
앞을 보아도  
변함 없는 지킴인 것을



꽃을 짊어지고

# 당근

붉은 눈 들어  
썩이는 한  
짜라기 눈발 되어  
날리리  
붉은 깃발 들어  
싸우는 짐승 떼처럼  
험난한 입 싸움  
깨지게 먹고  
살아 있는 이 한 목숨  
숨을 몰아  
날리리



# 담배 세대

담배 세대  
조가비들의 연기  
마음이 잠잠해 지는  
가을 하늘처럼  
그 연기는 아지랑이 되어  
피어 오르고  
마음은 어디론가  
떠나고 있다  
아침 담배 세대

꽃을 짊어지고



## 홀로 된 배

만나고 헤어지고  
살 넘어 가는 길  
외길 옆 누운 솔들  
사계절이 한 계절이라  
멈출 줄 모르네  
산고의 고통 산에 짊어지고  
어기야 어기야  
살아가는 길  
어렵고 더러운 일에  
몸 떠나고 마음 떠나는 배  
그곳에 나 홀로 배를 띄웠다



# 집

한 잠 쏟아진다  
지친 육신 누일 곳 없어  
쓰러지는 인간들  
어그러진 얼굴에  
나 어디에 있는지  
항상 방황하는 이들  
그들이 설 곳은  
가로등이 그려진 작은 움막집  
나도 이곳에서 잠든다

꽃을 짊어지고



# 새로운 눈

새로운 눈이 떴다  
반가워라  
처음 보는 눈짓에  
흰 눈이 내리고  
하얀 발이 고맙기도 하여라  
아픔을 아는 그대여  
그 마음 변치 않기를



# 하루의 대화

해 뜨는 새벽  
비록 해는 볼 수 없으나  
아침에 피어 오르는  
옥 줄기에서 타오르는  
한 모금의 희망을  
끌어 안았다  
따사로이 녹아나는  
커피 한 잔은  
낮들을 기다리듯  
정신을 맑게 하고  
새벽의 하루를  
깨운다  
정 담긴 담소에  
따사로움에 느끼며

꽃을 짊어지고



## 새알 곡들

붉은 등 아래 가을 별판  
타고난 자리  
햇살에 깨어나고  
마음이 풍요로워  
알곡의 노오란 물결을  
이고 사는 농부들의 마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자다 깨서 꿈결 같은  
벼 이랑들  
너나 없이 주렁주렁  
열매 맺고 자랑하니  
내 마음 푸른 강물에  
내 알곡 씻어다가  
마음 밭에 뿌리고파  
오늘도 웃고 싶다네  
그리운 그대여

꽃을 짚어지고



# 어느 식사 시간

상 피는 소리에 식사 정오가 울리듯  
눈을 뜨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두 줄로 기다리다 보면  
배가 불러 오는 듯  
하루가 가고  
밥술에 질린 듯  
버려 버린다  
식사가 끝나면 모두가  
조용하다

꽃을 짊어지고



## 웃음

모였다 수다시간  
모드들 웃기 바쁘다  
슬픔 아픔  
다 사라지고  
기쁨이 있는 시간  
이곳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다



# 새벽녘

새벽이 좋아  
눈을 뜨니  
어둠뿐이다  
잠든 소리  
쌔액 짹  
이곳은 병원이었구나

꽃을 짊어지고



## 동네

은은한 지붕들  
하얀 눈알들이 내리던  
어느 날 아침  
홀로 외로이 깨어  
하늘을 보고  
땅을 보았다  
빈 가지엔 정 없는 마음이 고이고  
빈 마음엔 미움이 고여 있었다  
그 누구인가  
마음에 작은 정을 키워줄 이  
작은 사랑조차 부족한 이 세상에  
밝은 빛이 되어줄 이



#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겨울에 봄 꽃이 피었네  
홍안인 얼굴에  
네 잎 달고  
봄맞이하러 나왔네

꽃이 피었네  
여름에 봄 꽃이 피었네  
땀 흘린 얼굴에  
네 잎 달고  
봄맞이하러 나왔네



## 할 일

학처럼 나르라고  
천사를 보내오셨나  
일하라고  
날개를 보내오셨나  
하루를 나르라고  
하루는 옹으러 지고  
깨지다가 살아난  
과거에 핀 꽃  
이젠 날아 보라고  
하는지  
사업을 하잖다



## 양말 두 짝

남의 옷 주어입고  
남의 사랑 훔치며  
거짓만 따라다니는 무리 중  
찾아야 할 그 무엇은  
어디에 놓여 있는지  
행복이란 말 뒤로하고  
어깨가 무거운  
돌멩이로 누른 듯  
무거워지는 마음  
무의식 속에서 찾은 마음  
하루가 감을 안고  
뒤돌아 서는  
허름한 옷

꽃을 짊어지고



# 저녁

얘기하고  
떠들고  
입씨름 하다  
한 생이 가는 현재  
어디에서  
나를 찾으러  
지금도 시간은 흐르는데



# 불안

눈보라 치고  
언 땅들이 우는 시대  
지혜롭고 파  
가는 길 가지 못하고  
서성이는 현실  
돈이 없어  
사랑이 없어  
고민하는 마음  
저 멀리 두고  
눈물방울 세는  
밤이 왔음을  
아련한 전등의  
그림자가 빛을 비춘다

꽃을 짊어지고



# 내 사랑 어디에 있나

내 사랑 어디에 있나  
그리운 것들  
마음 돌 곳 없는 현재  
무에서 유를 만들고  
웃을 수 있는 기쁨은  
어디로부터 올 것인가  
사랑한다면  
말 한마디 못했던 이  
그리워하여도  
그리움 뒤 끝에 오는  
허무 속에서  
나조차 잃어버린다



# 들국화

한 송이 꽃은  
나를 위해 피지 않았다  
현재라는 아픔들을  
봄날에도  
검은 까마귀를 날개 하였다  
울어도 희어지지 못할 미래가 두렵다  
꽃잎 다 떨어질까 봐

꽃을 짊어지고



# 비밀

주고 받는 것이  
비밀스러운 방  
즐겁게 같이 웃고  
밥 먹고  
함께 자고  
그러나 그들은 누구인가  
마지막 쪽지 속에  
마지막 전달 사향은  
눈을 속이고  
마음을 속이는  
거짓 탈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질문 없이도 질문은  
병을 얻게 하였네



# 나 외로운 거리를 홀로 걸어도

나 외로운 거리를 홀로 걸어도  
외롭지 않은 이유는  
그대가 내 마음 속에 머무르기에

나 외로운 거리를 홀로 걸어도  
외롭지 않음은  
그대가 내 마음을 아는 까닭이

나 외로운 거리를 홀로 걸어도  
외롭지 않음은  
그대가 그림자 되어 동행하는 까닭입니다



꽃을 짊어지고

## 을보

울음이 얼굴을  
땅으로 범벅 되게 만들고  
과자 하나에  
그리곤 씹긋 웃는  
한 코미디 같은 날이 지나가면  
저녁이 조용하다



# 희망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아롱 아롱

정 오고  
마음 오고  
아롱 아롱

구름 흐르는  
희망의 종

꽃을 짊어지고



# 봄

나는 원래 그래  
꽃이 피고  
새들이 날고  
나무들이 웃는  
행복한 시간

언 땅 위에  
햇살이 웅크하고  
산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곳

새집 현 집 고치고  
봄 햇살 받는  
아름다운 날들



오늘 그곳에 노랑  
개나리가 한 송이 피었네  
희망이라는



# 내가 살아낸 삶 중에서

나를 낳았다  
사랑으로 크고  
작은 나무처럼 자라났다  
나이가 들고  
시험에 들고  
차마 말 못할 것들  
이 악물고 참아내고  
가까움에서 느낀 배반  
사라진 집  
연락 소식 이것은  
중요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무였다  
미래가 망가져 간 사연  
나는 죽었다  
그들에게서  
나의 부모님

꽃을 짊어지고



사랑은 작아지고  
믿음은 깨지고  
나는 울었다  
통곡하여 가슴이 터졌다

꽃을 짊어지고



## 흑부리

몸 속에 흑이 생겼단다  
아무 탈 없이 커온  
흑부리 아저씨 찾아와  
웬 고생인지  
붉은 꽃잎 뚝뚝 떨어진다  
땅 밑에 뿌리 내리듯  
삭아져 가는 모습  
건강이 최고라고  
마음 속의 소리가  
화들짝 피어  
향기를 품는다



## 그리운 겨울

어릴 적 찾아 갔던 길  
논두렁 밭두렁  
언 앞들이 붙어 떨어지지 않고  
발을 동동거리며  
걸어갔던 추억의 길  
먼 호반의 그림자  
길이 변하지 않았는데  
지붕마다 쌓인 흰 눈도 변하지 않았는데  
세월만큼 달라진 어린 나  
홀로 외로이 서 있던 나무처럼  
커져 버린 나  
그리고 외로운 집터  
가버린 옛추억에  
눈물 저리며 아늑히  
할머니 얼굴 그려보는  
그리운 겨울

꽃을 짊어지고



# 포만감

배가 부른다  
부가 보인다  
우리는 모두 원래 먹보다  
죽을 만큼 위가 차면  
살아 있는 듯  
숨이 가쁘다  
심장이 뛰는 것이다  
삶도 같이 뛰는 것이다



# 행복

내 마음 이상으로 놓으면  
나 행복하노라  
내 마음의 미움 버리면  
나 행복하노라  
내 마음에 모두를 버리면  
나를 찾는 행복을 아노라



## 그리운 이

소소히 흐르는 강  
나도 따라 가고파  
음률로 세운 세월  
흐르다 흐르다 목마르면  
침묵으로 가르는 먼 강  
따를 수 없어  
홀로 남은 마음  
그리운 이여  
한배 저어 가자



# 동행한 발자국

한 송이 눈꽃 위에  
꽃망을 하나  
당신의 마음

천사가 남긴 발자국  
뿌리 된 나무  
당신의 의지

한 업으로 쌓인 인생  
대지의 흰 눈  
당신과 나의 동행한 발자국



꽃을 짊어지고

## 용서를 얘기 하며

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삶을 사랑해 주는  
이해라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짐하는 것을  
죄를 지은 자들은 알고 있을까  
누구 이간이데  
용서하리  
이 모진 마음 앞에서



## 꽃 짚어지고

꽃 짚어지고 꽃 길 걷다 보면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한다네  
작은 잔디들 토끼풀들  
함께 웃을 수 있는 것들이  
사랑 사랑 춤추고 있다네

삶 짚어지고 삶 외길 가다 보면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한다네  
서로 아는 사람들 향해가  
함께 하며 미래를 향하여 가는  
알콩 달콩 한 인생들이 있다네

꽃을 짚어지고



# 안노

생 먹은 듯 피운 꽃망울  
잎새마다  
꽃잎마다 피울 안노  
겨울 떠나  
봄이 오면  
다시 찾아 들것을

안노 : 기러기 때가 잘 때 경계하는 기러기



## 눈을 뜨며

산의 몸에서 피가 흐른다  
수정 같은 얼음은  
겨울 하늘을 걸어 놓고  
산 안개를 마신다  
꽃 내가 흐르는 마음은  
햇빛을 문 두드리며  
피 흘린 상처들  
퍼져가는 안개로  
머리를 식힌다  
새벽녘 담배 한대

꽃을 짚어지고



# 사랑하는 사람아

땅 빛깔과 닮아가는 나뭇잎 따라  
별 따러 떠나간 사람  
은은한 기다림  
은빛 날 세운 매물찬 바람에  
햇살이 데운 고운 모래밭  
조가비 사근거리는 그림 귀  
목신 입술로 찾고 찾아 보네  
헤 별쪽 샛바람  
눈물에 찌든 얼굴에  
작은 잎새 두 혀를 날름거리는  
그대 어디에 있는가  
슬픈 기도와 그대를 그린다



## 그리운 주름

그리운 주름이  
눈 꿈질 하듯  
허리가 패인 산  
그곳에 그대가 있으리 하고  
찾고 찾는다  
안개 속에 가려진 나무들  
있들이 알리라고  
묻고 또 묻는다  
그리운 잎사귀 하나  
뚝 하고 떨어진다

꽃을 짊어지고



# 나의 나무

예 싫어  
나 보고 싶어  
무언의 말  
그대는 늘 그렇게  
살았지  
지금은 내 곁에 없지만  
그를 향한 믿음만은  
살아있지



# 아카시아 꽃

꽃이 피면 산이 지고  
흐드러지게 부서진 잎은  
갈 길을 가르쳐 주고  
나 홀로 가는 삶에  
희망과 기쁨을 안겨준다네



꽃을 짊어지고

## 중독된 자들

한잔 두잔 마시다 보면  
내가 네가 되고  
보고 느끼는 것조차  
내가 네가 되는  
어지러움이  
삶을 주려 나가는  
가족도 떠나고  
직장도 떠나고  
나 홀로 남아 싸우는  
전쟁같이  
고독을 머금으며  
정신의 혼란을 자신의  
생으로 키운다



## 잠든 시간

빨강 등이 내게로 와  
호흡 소리를 내며  
하루가 간다  
약물에 익숙해진  
취침들은  
술 취한 사람들의  
주정들처럼  
하루를 보낸다  
꿈도 없고 잠만이  
고독한 호흡소리로  
단잠 속에서 뒤치다 걸린다  
먼 바다에 와 있는 듯  
파도는 말도 없이 소리도 없이  
잘도 출렁거린다

꽃을 짊어지고



## 소화

운동이란 걷기뿐인 세상에서 산  
땅들은 영당이 안에서 나는  
방구소리로 건강을 입증하듯  
하루 종일 뽕뽕거린다  
하루의 탈속에 새끼 식사가 준 선물로서  
달도 볼 수 없는 하루  
해도 별도 없는 하루 하루  
바깥은 추위와 눈으로  
언 땅을 치는데  
속은 오장유보를 건드리고  
입술을 바짝바짝 마르게 한다  
악 없이 세워야 할 밤이면  
소화제 한 알이 굴러들어오고  
편안한 잠자리가 되어  
눈을 감게 만든다  
일상 첫 열매의 샷



탈없이 아침햇살을 받으며  
새싹으로 다시 깨어난다  
내가 토해낸 토와 함께  
땅들은 봄을 향해 달려가고  
배속은 흰히 뚫려  
마음까지 후련하다

꽃을 짊어지고



꽃 짙어지고 꽃 길 걷다 보면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한다네  
작은 잔디들 토끼풀들  
함께 웃을 수 있는 것들이  
살랑 살랑 춤추고 있다네

